

지역 간 사찰 유대와 협력 도모

부산 수영구불교연합회 창립

부산 수영구불교연합회 창립법회와 초대 회장 취임식이 10월8일 유포피아 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초대 회장에 영주암 주지 범산 스님이 추대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상암부회장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 정사, 유재중 국회의원, 박현욱 수영구청장, 신무홍 수영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부산 수영구불교연합회 창립법회와 초대회장 취임식이 10월8일 유포피아 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초대회장에 범산 스님 추대 유포피아 관광호텔서 취임식

를 중심으로 16개 구연합회가 한마음이 되어 불교도시 부산에서 국제불교 도시 부산으로 원력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동거동락하는 것이 가족이다. 수영구불교연합회의 창립을 계기로 부산불교계가 가족처럼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며 "올해 네 번째로 창립을 맞게 된 수영구불교연합회는 부산불자들의 조직화와 현대화의 열원이 반영된 것이기에 부산불교연합회도 함께 동거동락할 것"이라고 말

했다. 총무국장 범우 스님은 "수영구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지역구의 보다 집중적인 불법홍포와 부산불교의 조직화 불사를 견인하기 위해 수영구와 남구가 통합되어 있는 것을 분구하여 새로이 창립하게 됐다"며 경과보고를 통해 창립의 취지를 전했다.

특히, 수영구불교연합회는 부산불교연합회가 16개지역구의 불교조직화의 기치를 내건 이후, 2013년 들어 기장군불교연합회, 사상구불교연합회, 부산진구불교연합회에 이어 네 번째로 창립하게 됐다. 이후 10월 19일 창립을 앞두고 있는 남구불교연합회까지 가세하면 올 해 부산지역에 새롭게 출범하게 된 구불교연합회는 총 5곳이 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청암사, 친환경 자연음식 대중에게 선사

산사마당 유미사찰음식 바자회

청암사가 10월 6일 제7회 산사마당 유미사찰음식 바자회를 경내에서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학장 지형 스님 주지 상덕 스님, 박보생 김천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는 '가을 속에 진리 속에 마음 열고 환희롭게'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찰음식 5점을 소개하고 사부대중에게 유미사찰음식 바자회를 열었다. 행사는 경내 곳곳에서 사찰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암사 산사마당 유미사찰음식 바자회 장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친환경적인 자연음식'을 직접 맛보며 사찰음식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주지 상덕 스님은 "사찰음식은 산과 들에서 나는 천연 무공해 재료로 오신채와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식이라 자연의 맛과 향을 담은 담백하고 소박한 음식"이라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건강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암승가대 학장 지형 스님은 "사찰 음식의 기원은 유미족으로

하루에 깨 한 톨, 보리 한 알만 먹고 정진하던 부처님께서 육체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며 수자타란 여인이 유미족을 올리면서 불교음식의 기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날 바자회에 앞서 청암승가대 학장 지형 스님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인 속가 고모 박채희 씨의 건국포장을 국가보훈청으로부터 전달 받기도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약사선원 약사여래불 가피 대법회

10월 17일 해운대 벅스코서

신비로운 티베트의 밀교 수행법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적용하고 대중화를 시도해 온 '보리선수(菩提禪修) 부산 약사선원'이 티베트 밀교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대중법회를 마련한다.

보리선수 부산 약사선원(주지 범생 스님)은 10월17일 해운대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약사여래불 가피대법회'를 개최한다. 송정수련관 완공을 맞아 특별기획한 이번 법회는 한국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첫 대중법회로 현대적인 티베트 밀법을 체험할 수 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불자 외에도 종교가 다른 일반인들의 참석도 가능하다. 특히, 중국어 동시 통역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동참도 가능하다. 이날 법회는 보리선수가 자체 제작한 아름다운 선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대표적 수행법인 '오체투지'를 실시하는 체험으로 법석을 열게 된다. 이어 범생스님의 현대적인 티베트 밀법으로 안내하는 법문과 음악이 가미된 약사여래심주, 관세음보살 염송으로 법회가 진행된다.

특히, 법문에 이어 심신의 이완과 선정을 체험하는 수행과 기도가 진행되고 회향은 감로수를 대중들에게 뿌리며 마무리 된다. 보리선수 약사선원은 '진푸티 상사'가 창시한 현대적 밀교 수행법인 '보리선 수행법'을 지도하고 실천하는 도량이다. '진푸티 상사'는 티베트 설산에서 200여명의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구하고 수련을 거듭한 끝에 현대인들을 위한 수행방법인 '보리선 수행법'을 창시한 수행자이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세계 30여개 지역에서 선원을 개원해 수행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보리선 수행법은 만트라와 명상음악, 수인법을 가미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한편 약사선원은 현재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안산, 대구에 각각 지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051)702-7746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홍수피해 등 여름 흔적 지울 때

예년에 비해 이번 여름은 홍수가 더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재해를 입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은 없었던 듯하다. 절에 따라서는 흙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개울물이 넘쳐 농작물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계단들이 교란되기도 하는 등 조그마한 피해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상하거나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뉴스가 될 만한 큰 피해는 없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피해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는 자세는 필요해 보인다.

한 계절이 지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다른 계절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계절을 준비하려면 지나간 계절의 흔적을 지워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만만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여름에 있었던 피해의 흔적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사찰의 스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필자가 설계해서 만든 교화공원의 광장 귀퉁이 벽돌이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스님의 걱정하시는 얼굴이 생각나 즉시 공사를 했던 회사의 임원에게 연락을 해서 현장을 가보았다. 보니, 광장 귀퉁이 부분에 물이 차면서 지반이 내려앉아 포장이 부분적으로 교란되어있었다.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사찰안팎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름의 흔적은 흙을 움직이거나 돌을 쌓아 새로 공간을 조성한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취약한 구조를

가진 곳을 건드리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을 지나거나 땅이 공공 열었다 풀리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 스님들은 가급적 땅을 건드리지 않았고, 땅을 건드려더라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만치만 건드렸던 것이다.

아담한 산사를 보고 "왜 절집 마당이 저렇게 작아? 넉넉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라고 투덜댄다면 옛 스님들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 것이다. 오래전부터 스님들은 땅이 가진 생태적 수용능력을 잘 알아서 땅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손을 댔던 것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다.

아무 탈 없이 여름을 보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환경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사부대중이 건강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 하면서 사찰마다 여름지우기를 할 때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마다 여름 지우기를 통해 사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여름이 지나면서 교란된 계단들. 사진은 경기도 보사찰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雲寺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총림대중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kr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화 061)392-7502 / 전송 061)392-2081